

# 한국 근현대 격랑을 헤친 보살



##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오탁약세의 말법 시대는 기본을 지킨 것만으로도 만인의 귀감이 되는 시절이다. 감기로 40도 가까운 고열에도, 갈비뼈를 다쳐 붕대를 감고도 단 하루 새벽 예불조차도 거르지 않던 석주 스님(1909~2004)은 '평상심이 도'인 것을 생활로 실천했던 선지식이었다. 정화·포교·역경·교육 불사 등 현대 한국불교의 발방미인이었던 석주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석주 스님의 사상과 생애 등을 학술적으로 회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8년 4월 8일 석주정일 대종사 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 # 근현대한국불교의 선지식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은 '석주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발표에서 '탄생-성장-출가-구도-오도-이타행-열반'의 승진(僧進) 구도에 맞춰 석주 스님의 생애를 재구성했다.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이 탄생한 1909년은 우리 민족이 정치·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던 때였다.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석주 스님은 자연스럽게 애국, 애족 의식을 키웠을 것"이라며 "이때 싹튼 민족 불교 사상이 외세 불교정산을 비롯한 정화불사, 평생 보살행으로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석주 스님의 학문적 열정과 서예 능력과 관련해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이 출생한 경북 안동은 예로부터 도학과 묵학이 유명했던 곳이며, 출생지 인근 봉서사는 석주 스님에게 불교적 영향을 끼쳤다. 경북 안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게 했다. 한학에 대한 조예는 석주 스님이 역경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은 검소하고 순수한 품성으로 선학원 시절에는 절 살림을 맡도록 꾸렸고, 평생 정정수행 했다"며 석주 스님의 생애가 바로 한국근현대불교사임을 보였다. 한편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의 불사를 정화 불사와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 불사, 역경 불사로 나눴다."

#### # 중단개혁의 발아

송운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침탈된 수행풍조와 사찰재산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선학원 운동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윤식 소장(동국대 일본학연구소)은 '석주 큰스님과 중단개혁불사'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교단의 개혁적인

은 석주 큰스님에 의해 발아돼 꾸준한 실천이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주장의 근거를 "오늘날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청정 출가정신 ▲대중불교 중흥 ▲불교의 자주화 등 개혁의 방향성이 석주 큰스님의 행장에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고 들었다.

#### # 인재불사로 대표되는 보살의 화신

송운 스님은 "1965년 칠보어린이회와 불교침보 어린이 합창단과 소년교화연합회 등 조직을 석주 스님이 창설했다. 이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포교사업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선근 교수(동국대)는 송운 스님의 논지에 구체적인 실증을 더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의 사상을 자신의(慈室忍衣)·무상행(無相行)·화안애어(和顔愛語)·오유지족(吾唯之足)으로 설명하며, "석주 스님은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교육불사를 실천한 보살"이라 칭했다. '자실인'의 '법화경' 법사품의 교설로 '자비의 집, 인욕의 옷'을 뜻한다. 모든 생명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며, 인욕바라밀 수행을 통해 죽는 날까지 자비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상행'은 집착한 없이 참여해 스스로 이분법의 상(相)을 여의는 행이다. <금강경>의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應無所住 而生其心)' 등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무상행은 마치 연꽃이 진흙에 머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로, 석주 스님은 무상의 교설을 자신의 인격과 생활 속에 구현한 분"이라 말했다.

'화안애어'는 <금강경>의 무상(無相)한 진리로 마음과 행동을 태양처럼 밝은 마음, 밝은 얼굴, 밝은 표정으로 사랑스런 말을 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화안애어는 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표정"이

라며 <화엄경>이 설하는 보현행원과 같다고 설명했다.

나는 만족을 알 뿐이라는 '오유지족'은 석주 스님이 평소 휘호를 쓸 적에 자주 쓰던 말이다. 석주 스님의 '오유지족' 휘호는 '口'를 가운데 두고 위로 '吾' 아래로 '足' 오른쪽으로 '唯' 왼쪽으로 '知'를 써 독특한 배열로 구성했다. 김 교수는 "오유지족은 수분지족으로 석주 스님의 도심세계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수분지족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의 교육불사를 ▲어린이회 육성불사 ▲청소년교화연합회 육성불사 ▲중양승가대학 육성불사로 나눠 설명하며, "조계종의 도제 양성·포교·역경의 3대사업에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석주 스님"이라고 역설했다.

#### # 전방위적 포교활동

인재·교육불사에 이어 석주 스님의 포교활동도 주목받았다.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원)은 '석주 큰스님의 포교활동' 발표에서 "석주 스님은 설법과 강의 등 직접포교 뿐 아니라 문화·복지 등을 활용한 간접포교의 중요성도 인식해 전방위적 포교를 아우른 분"이라고 말했다. 고명석 연구원은 "석주 스님의 포교영역은 각종 법회는 물론 문서포교, 교육포교, 복지포교, 어린이·청소년포교, 청년포교, 군장병·재소자 등 특수계층 포교, 문화포교, 미디어포교, 수행력을 통한 포교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며 석주 스님의 포교활동을 정리했다.

고 연구원은 "석주 스님의 포교원력과 역정에서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라는 점과 도심포교가 중요하다는 점, 포교를 위해 신명을 바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불교근현대사의 주역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은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근현대사' 발표에서 "세수 96세로 열반한 석주 스님의 삶은 혼란과 격동기로 접철된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석주 스님은 해방 전, 선학원에서 대승불교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해방 후에는 불교혁신운동에 적극 활동했다. 불교정화운동에서는 사찰 재정 공개, 종단목적불사 추진, 인사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한 불교개혁의 선구자였다"며 한국 근현대사 격랑 속에 중심축으로 우뚝 섰던 석주 스님의 삶을 재정의했다.

법진 스님은 "1971년, 1978년, 1984년 세차레나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역사의 정점과 격랑의 끝에서도 석주 스님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며 영명연수 선사 문집의 서문으로 끝맺었다.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회의에는 월호 스님(석주정일 대종사 문도회 대표)과 현해 스님(전 동국학원 이사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영담 스님(BBS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리와 소나무 같은 지조로 자신을 정제하고 물에 담긴 달처럼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대하라

"평소 큰스님이라는 호칭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석주 스님이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라는 거창한 행사로 진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남았다. 또 원로스님이 입적할 때마다 각 문도회가 세를 자랑하듯 벌이는 행사보다 종단 차원에서 공의 공문을 통한 학술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운암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 한상도 교수 '승려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발표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운암 김성숙 선생(태희 스님·사진)의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해찬)는 4월 25일 서울 서대문독립관 무궁화홀에서 '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주관하는 이



지청장, 광복회 김국주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한 운암 선생은 1916년 경기도 용문사로 출가해 월호 스님으로부터 '성숙(星淑)'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항일운동에 나서 재중국 조선청년총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을 조직했다. 이후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을 거쳐 광복 이후 재야 통합야당인 신민당의 지도위원을 역임했다. 선생의 유해는 2004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02)391-9100

여수령 기자

'우리 학회는' 쉽니다.



석가모니부처님 사리



계세 라마 존속 사리



아난존자 사리



목련존자 사리



밀라리빠 사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의 성철 큰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들의 사리 등 총 39위(位)의 사리 3,000여과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 열사리



조대 까리마빠 사리



명진 스님 사리



라마 풍카빠 사리



성철 큰스님 사리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부산·경남 불자를 위한

# 부처님 진신사리 부산 전시회

2008. 4. 18~4. 23 오전 10시 ~ 오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야원

【사리친견 개원법회】 증명법사 : 범어사 주지 정여 큰스님

2008. 4. 17 오후 3시

|주 회|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www.maitreya-project.or.kr / www.maitreya-project.org)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야원

|문 의| 반야원 T. 051) 701-5655

|후 원|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불교TV, 부산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 반야원 오시는길 : 지하철 장산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